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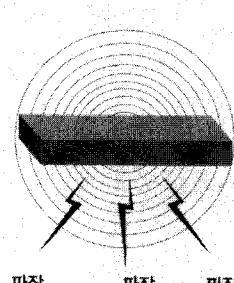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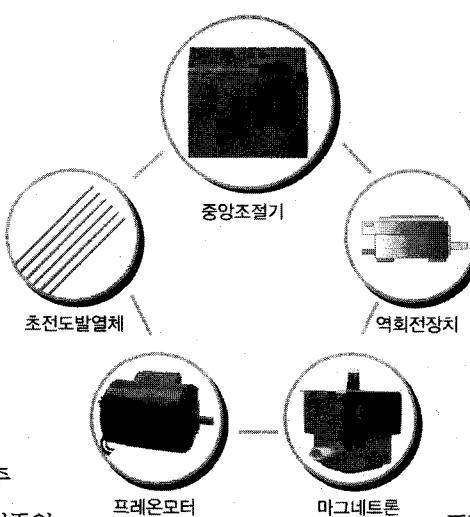
기름·가스 필요없는 차세대 보일러 (고주파 난방시스템)

광주지부 사무국장
고영관

기존 난방비보다 최고 70%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주파 난방시스템이 한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경영! 바로 기술이 원동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올해 기술혁신 개발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밀레니엄드림(주)는 고주파 난방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온수, 온돌 난방 대비연료비의 약 45% 이상, 전용 난방시에는 50~7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주파 난방 시스템이란 소음, 냄새, 유해가스, 중독, 폭발 위험이 전혀 없는 에너지 절약형 난방시스템이다. 전기를 공급받아 그 열을 풀우는 스방식이 아니라 파장이 물체 내에 빠르게 스며들어 물체 스스로 열을 내게 하는 기술이다.

초전도 발열체의 경우 직선으로 파장이 전달되며 내부에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어 매우 빠르게 열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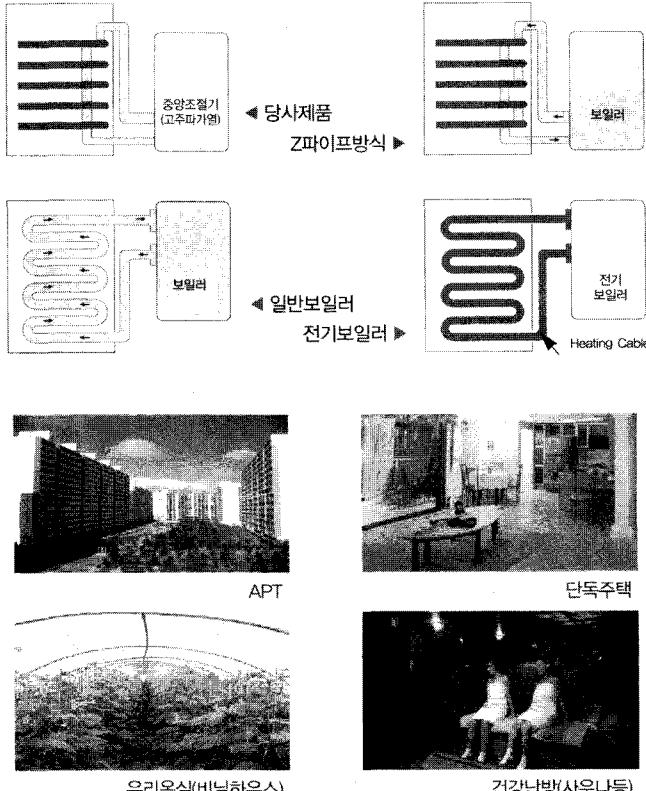
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에 따라 일정 온도에 도달한 후 장시간 열을 유지 발산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주파 난방시스템은 난방에 필요한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까지 기존 난방에 비해 약 3~4배 빠른 속도로 난방이 이루어지므로 열효율이 높다”고 말하고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주파 난방 시스템의 경우 가정용 (주택, 아파트, 연립 등)이나 업소용 (목욕탕, 사우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비닐 하우스 축사 단지 난방도 가능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불안정한 유류가격과 유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 이미 세계적으로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고 기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미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절약운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조례안을 만들어오는 9월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 조례안에는 건물을 신출할 경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차단시스템을 사무실별로 설치하는 등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난방계량기 설치 및 가동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도 받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밀레니엄드림(주)의 에너지 절감 난



방시스템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밀레니엄드림(주)은 고주파에 대한 이론을 국내 최초로 정립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장치인 노면 결빙방지 시스템을 세계최초로 개발한 바 있는 기술전문벤처 기업으로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주파 난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보일러 시장과 비닐하우스 등 국내 난방 시장이 1조 5천억 원, 교체시장이 2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역별 총판 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모집

난방시공업의 대변지인 월간「보일러설비」에서 광고를 모집합니다.
본지에 광고를 실으시면 탁월한 효과를 기대 하실 수 있습니다.

● 광고문의 (02)3402-3066 / 011-301-5204